

신세대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앞선 세대를 향해 언제나 충격적 차별성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기존의 상식과 가치관을 뒤집고 조롱하며, 끊임없이 낯선 것을 가져와 부모세대를 놀라게 해 준다. 부모세대는 이미 낯선 것에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있으니까.

아마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이 있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기성세대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도덕적 이탈과 버릇없음, 그리고 언어의 황폐화와 대책 없는 폭력화에 난감해 하고 있다.

요즘 어른들이 당연한 변화에 지나친 격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최근 '학교경찰'을 탄생시킨 학교 폭력도 그러려니와 포르노 사진에 선생님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에 띄우고, 교실 TV앞에 모여 포르노를 함께 보면서 '선생님 섹스 한번 할래요?' 라는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에 올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라면 이를 단순한 변화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화의 징조라기보다 인성의 황폐화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통제 불가능이라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 본지 논설위원

바른 '세살 버릇' 왜 없을까

는 버릇이 들려고 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 인성교육의 부재, 자녀 제일주의에서 나온 부모들의 애정괴인과 자녀를 맞지 않는 방식에서 문제를 찾는다.

속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속도감이 가져오는 어지러운 사회적 과학적 변화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고 지금도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부터 동서양 어느 나라에서나 '세살버릇 어

든까지'라는 격언과 함께 어린이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것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기도문을 무조건 외우게 한다. 뜻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면 그 기도문은 그에게 평생의 지주가 되어 어느 날 문득 하나씩 깨달아 가며 종교심과 도덕심을 형성해 가게 된다. 동북아권에서는 서당 등에서 사서삼경 등 고전을 그처럼 의무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어린이에게는 어려서부터 외워 평생 지주로 삼을 만한 그런 교본이 없다. '세살버릇 어든'의 교육적 격언을 실천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한국고유의 그런 교본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 종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미례의 종교'라는 확신을 굳혀가고 있는 불교야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에 기초한 새로운 교본마련에 눈떠 주었으면 싶다.

계 정 해 삼학을, 연기와 육바라밀을, 평등과 자비를, 하심과 공경을, 불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효과적인 교본 되기에 모자람이 있을까.

지금 모두 잊고 있는 '도리도리' '짜짜공' '부라부라' '시상시상' '지암지암' '곤지곤지' '섬마섬마' '어비어비' '아합아합' '질라라비힐힐'은 단군집계명으로 전해져 왔던 육아를 위한 전통 교육법이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동작과 말 속의 함의(含意)로 우주의 진리를 가르치려했던 이 '통견천경(洞見天經)'의 구조를 참고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컴퓨터·인터넷 게임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어린이 청소년들이 거부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법에 기초한 교본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올해도 참 좋은 계절에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왔다. 하기는 어느 계절 어느 날짜를 딱 집어 부처님오신날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는 음력 사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알고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전혀 다른 날을 부처님 오신날로 기리는 걸 보더라도, 어느 날이 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짜라고 딱히 집어넣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날들의 의의가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우리가 어느 날을 잡아 성인의 생신을 기념하는 데에는 날짜와는 상관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하도 일상의 살림살이 꾸러나가 기 바쁘고 내 한 몸 추스르기도 바쁘다 보니 마치 업무도 못 내는 더 큰 생각과 더 큰 삶의 가치를, 성인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빌미로 해서 모처럼 되살려보는 것이다.

부처님 생각으로 살기

나고 죽는, 오고 가는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려하면 결코 부처님을 못 본다고 경전에도 술하게 얘기했다.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왕자로서 누리던 온갖 권세와 영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수행의 길에 나서 마침내 깨달았고 바로 그 때문에 부처님이라 일컫는 이에 대해서, 생일이나 제사날이니 하는 것은 실상 엉뚱한 얘기이다. 다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부처님 생각으로 살기는 워낙 어려우니, 그렇게 날이라도 잡아놓고 그분이 열어 보인 참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사는 길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기회로 삼는 것일 터이다.

부처님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고자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겁부터 떨려 낸다. 다 버리고 출가하라고? 그 엄청난 투자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려나?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렇게 겁을 내지 말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경전에서 술하게 일러주지만, 그런 겁을 내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겁이 나면 별로 겁 안 내고 한 걸음 부처님 생각에 다가가 흉내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초파일 연등에 내 이름, 가족 이름 대신에 남을 위한 기도를 적어 매다는 것이다. 그게 내게, 내 가족에게도 훨씬 더 복되는 일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왜 우리는 그런 간단한 것조차 행하기 어려워하는 걸까? 그런 반성을 해볼 기회가 되는 것도 부처님 오신 날의 중요한 의의이다.

■ 윤현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김·경의 갈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사를 아는 자는 한 악인을 버림으로써 한 집을 이루고, 한 집을 버림으로써 한 고을을 이룬다. 그러나 정사를 모르는 이는 민물(民物)이 그 할 버릇 잃어서 천하가 원망하고 송사한다." <아함경>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위)'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공식검토하고 나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권력기관의 싸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사개위가 현행 사법 체계를 미국식 사법제도로 변경해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공판중심주의는 지금처럼 검찰조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역할만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가 증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고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자백위주의 수사와 조서제판으로 인한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을 사라지게 한다.

공판중심 주의 도입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두 기관의 신경전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 고수를 경찰은 수사권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 왔던 것처럼 독재 정권시절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력의 이미지가 강한 탓일까, 정작 두 권력기관의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왠지 씩씩하다. 겉으로는 '법외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정사를 아는 진정한 공복이 필요하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동국대 주제를 화합해야

'현대불교' 524호에 실린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론 안된다' 기사를 보면서 동국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민족사학으로서 동국대의 역사는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있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또 교수님들조차 학교의 일방주의적 학사행정, 학교운영에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의 주제인 재단, 교직원, 학생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에서 동국대 개교 99주년은 허탈하기만 하다. 겹겹이 쌓인 99주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단과 교수님들 학생 그리고 교직원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100주년이 동국대의 재도약을 위해 서로 화합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의 제 주제인 교수, 교직원, 학생의 의식수준과 100주년을 맞이할 준비상태가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

박은이(동국대 신학과 3)

낙태문제 되짚어 보자

서울 벽문사에서 낙태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낙태, 임신중절 수술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생명과 존재가치가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가끔씩 절에서 태아영가 천도재 등을 지낸다든 소식을 듣는다. 등을 달 때도 태아영가등을 단다. 뱃속의 자식을 자신의 처지에 의해 지워야 했던 부모의 마음을 오죽했을까. 그래도 법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법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느 절이 되었든 말이다.

깨달음도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불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에 낙태 위령제를 보면서 불자로서 불살생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기본으로 지켜져야 할 진리가 불자들에게는 불살생이어야 하지 않을까.

문현주(경기도 의정부시 정양동)

영동 영국사 화재 모면 교훈돼야

최근 영동 산불로 영국사가 탈 뻔한 일이 있었다. 혹이나 낙산사처럼 불에 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 뉴스를 끄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었다.

다행히 300m 앞까지 다행히 화마가 소방당국과 스님들의 처절한 사투로 영국사로 옮겨지지 않았다. 영국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사찰 내에 있던 불상과 탱화 등 불교 유물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

다고 한다. 천년고찰이 불에 타 사라질 뻔한 일을 막은 것이다. 잘못했으면 '제2의 낙산사 사태'를 맞아 불자들은 더 많은 자살했을 것이다.

불이 영국사 쪽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소방당국에서 헬기 11대와 소방차량 14대 등을 긴급 투입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여기에 영국사 스님들은 물론 인근 속리산 법주사와 다른 지역 스님들까지 달려와 법당에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필사적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저지하는데 전력을 쏟았다고 했다. 한 번 놀라서 인지 모두들 두 팔 걷어붙이고 산불 끄기에 전력한 것 같다. 낙산사처럼 소실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산불이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산사태이다. 소방대책을 세우고 끊임없이 관리하겠지만 제2, 제3의 낙산사가 나오지 않도록 산불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경미(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앞에도 연등 밝히자

올해에는 각자 자기의 집 앞에도 등을 밝혀보는 것이 어떨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만 등을 달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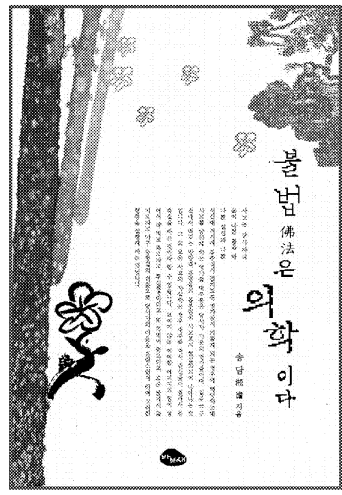
올해엔 각자 자기의 집 앞에도 등을 달아서 모든 불자들의 집안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환해지길 빌어본다.

연등달기(웃디뉴스)

'연대' 민영 심민섭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滋瀟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보다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신국판 | 319쪽 | 값 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모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생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수신통조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왕에게 속하리 뜻으로 바치는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통조가피 제재사 성경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통조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만을 생산합니다.

※ 산생태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해의 오가피 제품은 생공수습나 수신통조가피와 허풍의 관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도우기 사명호 교수 직접 제작한 분청다원을 드립니다.

수신통조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에는 복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